경산 양지리 유적 발굴성과 목관

박기혁
성림문화재연구원

| 목차 |

Ⅰ. 머리말
Ⅱ. 유적 개요
Ⅲ. 유구 및 유물
Ⅳ. 1호 목관묘 축조양상의 특징과 경산지역 목관묘
1) 옹관묘
2) 목관묘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경산 양지리 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걸쳐 조성된 대단위 생활 · 생산 · 분묘유적이다. 조사대상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 양지리 일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 시행규칙 제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의거 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해동문화재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지표조사는 2009년 5월 12일부터 동년 7월 10일까지 사업 대상부지 1,305,000㎡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지표조사 결과 사업 대상지역은 청동기~조선시대 건물지, 분묘군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아 시굴 · 표본 및 입회조사 의견이 도출되었다.[1)]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표조사에서 보고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시굴 · 표본)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2)] 이러한 지표조사 결과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개발 사업 범위를 481,630㎡로 한정하고 표본 및 시굴 조사에 대하여 공개 입찰을 진행하였고, 본 연구원이 선정됨에 따라 시굴조사 허가를 득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3)]

표본조사는 2차례, 시굴조사는 2017년 3월부터 동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는 1 · 2차 시굴 · 및 표본조사의 조치결과에 따라 조사 구간을 3개 구역(Ⅰ · Ⅱ · Ⅲ구역)으로 나누어 2017년 5월 29일에 착수하여 2018년 2월 5일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기간 중 현장공개 설명회 2회, 학술자문회의 6회, 전문가검토회의 2회와 공사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분완료 하였다.

1) (재)해동문화재연구원, 2009, 『경산 무학 택지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 경산시 새마을문화과-16639호(2009. 09. 24), 문화재청 발굴제도과-7366호(2009.09.24.)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문서.
3) 발굴제도과-14591호(2016.11.29.)

Ⅱ. 유적 개요

- 유 적 명 : 경산 하양(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 허가번호 : 허가 제2016-1477호
- 발굴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207답 일원
- 조사기간 및 면적 :

구 분	조사기간	조사일수	조사면적	발굴조사면적(㎡)
표본 1차	2017. 04. 03 ~ 2017. 04.07	5	23,257	4,922
2차	2017. 12. 06 ~ 2017. 12.08	3	11,679	
시굴 1차	2017. 03. 13 ~ 2017. 03.31	15	107,162	20,893
2차	2017. 04. 14 ~ 2017. 05.15	19	131,934	22,836
추가	2017. 08. 28 ~ 2017. 09.01	5	13,608	7,616
3차	2017. 09. 04 ~ 2017. 09.26	17	68,425	12,519
발굴조사	2017. 05. 29 ~ 2018. 02. 05	172	367,111	68,786

조사구역의 남쪽은 금호강의 지류인 조산천이 서쪽의 환성산과 초례봉 사이의 계곡부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흐르며, 동남쪽의 지점 부근에서는 넓은 평야지대가 발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사지역의 동쪽으로도 넓은 충적지가 발달하고 있어 식수 획득이 용이하고 농경지를 운용하기에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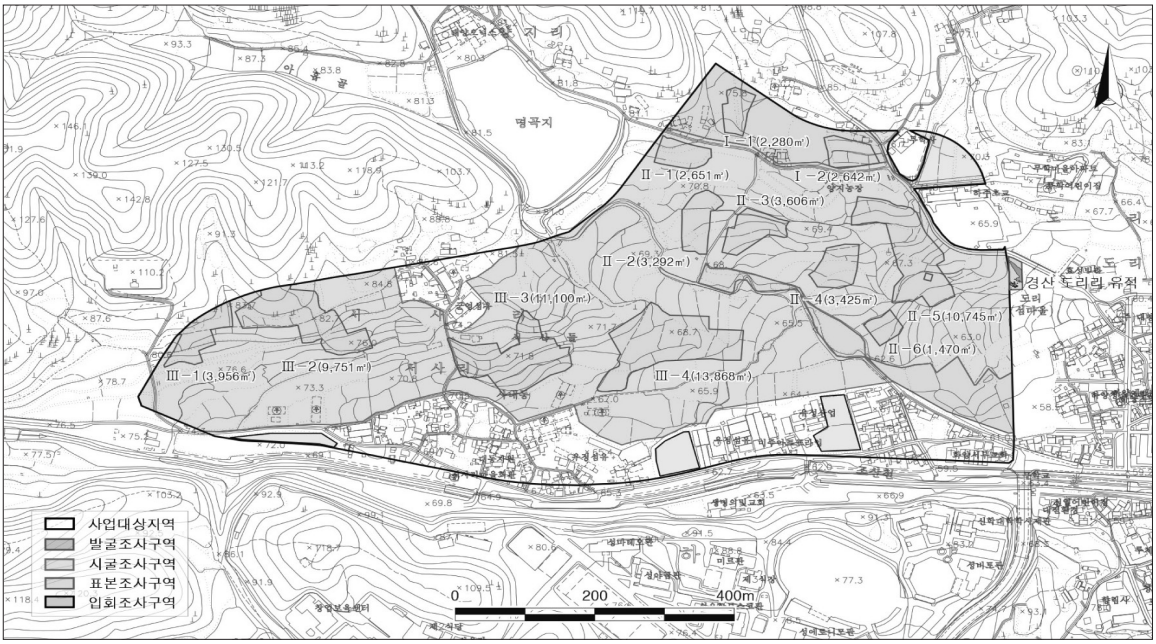
이렇듯 경산 양지리 유적에 위치한 선사 및 원사시대 주거지는 취락 입지를 위한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지리학적으로 볼 때 서쪽과 북쪽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금호강이 서류하기에 동쪽을 제외한 3면이 자연적 경계를 이루어 유적이 입지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사지역은 사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과 건물지 · 분묘군이 유존하는 서사리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바 있고, 조사지역과 연접하여 양지리고분군과 양지리 유물산포지, 서사리고분군과 부호리고분군3, 부호리민묘군1 · 2, 부호리 유물산포지 등이 입지하고 있다. 북동쪽으로 1km 떨어진 대학리 주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석관묘, 묘역식 지석묘가 확인된 바 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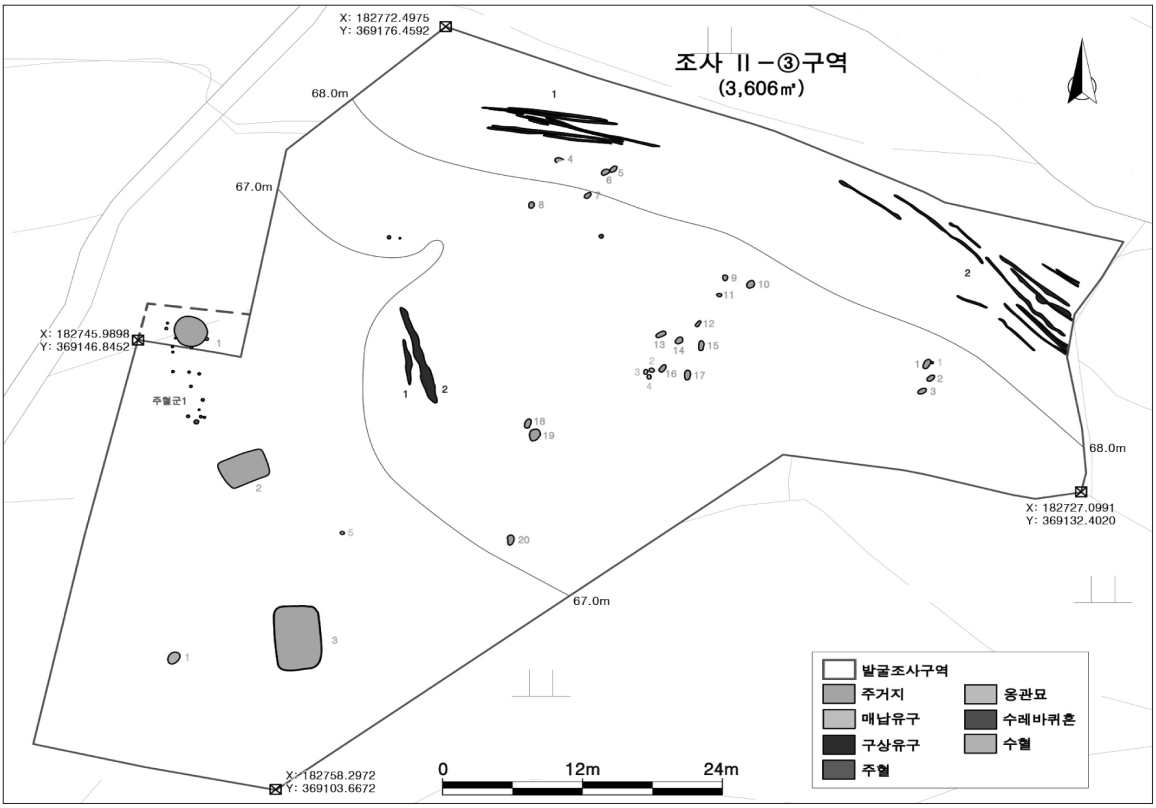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환호,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 옹관묘, 원삼국시대 주거지 · 수혈 · 목관묘, 삼국시대 토기가마 · 석곽 · 석실묘, 고려~조선시대의 기와가마 · 삼가마 · 토광묘 등 총 633기가 조사되었으며, 유구 내부에서 615건 646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환호가 조사되고 초기철기시대와 의 주거지 · 옹관묘, 삼국시대의 토기가마, 고려~조선시대의 기와가마는 조사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Ⅱ-5구역의 목관묘와 Ⅱ-2~5구역에서 조사된 옹관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4) (財)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8,『경산 대학리 51-1번지 유적 -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Ⅱ』
(재)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경산 대학리 · 교리 유적 -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삽도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1/25,000)



〈삽도 2〉 조사지역 조사 현황도(1/10,000)



〈삽도 3〉 II-3구역 유구분포도

〈삽도 4〉 II-5구역 유구분포도

〈표 1〉 유구 성격별 발굴조사 현황

유구종류(시대) / 구역명	생활시설(청동기, 원삼국, 고려~조선)													생산시설(삼국, 고려~조선)			무덤 시설(초기철기~원삼국, 삼국, 고려~조선)						합계
	수혈 주거지	고상식 건물지	(주혈)주혈군	우물	소토 노지	집석 적심	수혈	폐기 수혈	매납 유구	환호	구상유구	수레바퀴	축대	삼가마	와무지	기와/토기/목탄가마	옹관묘	목관묘	위석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토광묘	
Ⅰ-1구역	2		(3)		2		4				2					4			1			2	17
Ⅰ-2구역			(52)		2	1	11	2			5	3		2									26
Ⅱ-1구역					2		20	3					1			1							27
Ⅱ-2구역	14		(44)			1	20				4	3											42
Ⅱ-3구역	3		(3) 1				1		5		2	2					21						35
Ⅱ-4구역	10		(25) 1				18				3	1					1						34
Ⅱ-5구역	5		(432)	1	2		146				11			5			1	6					178
Ⅱ-6구역		1	(23)				4				3			1									9
Ⅲ-1구역	3				1		7				1		1		1	9							23
Ⅲ-2구역	2		(46)		2		19				11	2	1	6		1				1	2	4	50
Ⅲ-3구역	11	3	(55) 10		1		51				15			1									92
Ⅲ-4구역	15		(58) 11				19			1	7												100
합계	65	4	23 (741)	1	12	2	320	5	5	1	64	11	3	15		15	23	6	1	1	2	6	633

Ⅲ.유구 및 유물

1) 옹관묘

옹관묘는 Ⅱ-3구역 21기, Ⅱ-4구역 1기, Ⅱ-5구역 1기 등 모두 23기가 조사되었다. 옹관묘 23기 가운데 8기는 단옹식이고, 14기는 주옹과 부옹이 한 세트인 합구식이다. 이 가운데 Ⅱ-3구역 19호와 20호는 묘광이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음식 옹관묘 15기 가운데 주옹은 점토대토기이고 막음옹은 무문토기인 것이 12기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점토대토기는 삼각구연부 형태가 10기로 주를 이룬다.

Ⅱ-3구역에서 옹관묘는 해발 67~68.5m 지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상단부 북쪽 경계에 연접한 곳에서 1기가 확인되었고, 북동쪽 경계에 연접한 곳에서 3기가 조사되었다. 나머지는 조사구역의 중위에서 군집을 이루고 조성되었다. 유구가 입지하고 있는 곳은 계단식 경작으로 인해 상부가 많이 삭평되어 경작층 아래의 유구는 바닥만 잔존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에 초기철기시대 옹관묘가 광범위하게 군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4구역에서 옹관묘는 조사구역의 상단부 북쪽 경계에 연접한 지점인 해발 65.5m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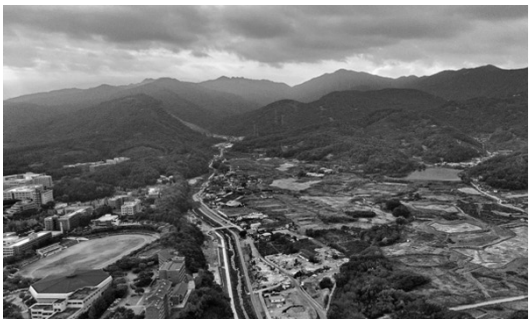
이 위치는 Ⅱ-3구역에 옹관묘가 군집을 이루는 곳과 약 20m 떨어져 있다. 조사된 옹관묘는 단옹식으로 주옹은 점토대토기 옹이고, 구연부에 와질토기 동체부편을 세워서 막음처리 하였다.

Ⅱ-5구역 옹관묘는 조사구역의 선상지대의 중위인 해발 65.0m 선상에서 단독으로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옹관묘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 주옹만 확인되었으며, 막음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옹관묘 유구속성표

연번	구역 구분	유구 번호	장축방향	규모(㎝)			묘광 평면형태	결합 형태	토기 조합	합구 형식	
				길이	너비	깊이					
1	Ⅱ-3	1호	N-23°-E	75	38	12	타원형	이음식	주옹(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발) 1점	A	
2	Ⅱ-3	2호	N-62°-E	70	38	8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무토기 저부편) 1점	?	
3	Ⅱ-3	3호	N-60°-E	78	42	5	타원형	이음식	주옹(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발) 1점	B	
4	Ⅱ-3	4호	N-81°-E	74	(39)	11	타원형	단옹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	
5	Ⅱ-3	5호	N-60°-E	71	38	7	타원형	이음식	주옹 1점(삼각구연점토대토기) 막음옹(무문토기 저부) 1점	C?	
6	Ⅱ-3	6호	N-69°-E	71	41	9	타원형	이음식	주옹(무문토기호) 1점 막음옹(무문토기편) 1점	마감호?	단옹?
7	Ⅱ-3	7호	N-48°-E	67	36	4	타원형	이음식	주옹(무문토기) 1점 막음옹 1점	불명	
8	Ⅱ-3	8호	N-12°-E	56	42	2	타원형	단옹식	옹관(무문토기) 1점	·	
9	Ⅱ-3	9호	N-8°-W	52	38	5	타원형	단옹식	옹관(발형토기)I 1점	·	
10	Ⅱ-3	10호	N-48°-E	42	27	5	타원형	단옹식	옹관(무문토기) 1점	·	
11	Ⅱ-3	11호	N-83°-W	59	29	6	타원형	단옹식	옹관(무문토기) 1점	·	
12	Ⅱ-3	12호	N-44°-E	91	40	10	타원형	이음식	주옹(발형무문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 1점	·	
13	Ⅱ-3	13호	N-13°-E	88	40	6	타원형	이음식	주옹(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점토대토기) 1점	불명	
14	Ⅱ-3	14호	N-62°-E	70	51	7	타원형	단옹식	옹관 1점	·	
15	Ⅱ-3	15호	N-76°-E	76	59	3	타원형	이음식	옹관(무문토기호) 1점 막음옹 1점	A	
16	Ⅱ-3	16호	N-43°-E	78	40	6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 1점	A	
17	Ⅱ-3	17호	N-15°-E	90	51	9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발) 1점	불명	
18	Ⅱ-3	18호	N-28°-E	88	48	5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A	
19	Ⅱ-3	19호	N-85°-W	114	72	10	장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점토대토기) 1점	A	
20	Ⅱ-3	20호	N-51°-E	128	85	12	장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천발형무문토기) 1점	A	
21	Ⅱ-3	21호	N-13°-E	87	54	10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파수부호) 1점	B	
22	Ⅱ-4	1호	N-80°-W	90	30	10	타원형	단옹식	주옹(무문토기호) 1점 뚜껑(와질토기편) 1점	·	
23	Ⅱ-5	1호	N-88°-W	42	25	10	타원형	단옹식	옹관 1점(삼각구연점토대토기)		

***합구 형식** – A형: 막음옹의 구연부가 주옹의 구연부을 덮고 있음. / B형: 주옹의 구연부가 막음옹의 구연부를 덮고 있음.
C형: 주옹과 막음옹의 구연부가 서로 맞닿아 있음.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사진 2〉 Ⅱ-5구역 항공사진

2) 목관묘

목관묘는 Ⅱ-5구역에서 6기가 조사되었으며, 지형은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저구릉의 말단부와 동-서 방향으로 둘러싼 지맥 사이의 충적지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다. 이곳은 완만한 평탄지로 자연적으로 퇴적된 곳을 일부 개간하여 계단식 경작지로 사용하였던 곳으로 상단 사면부는 과수식재가, 하단은 논으로 사용되었던 지대이다. 토층퇴적 양상은 크게 상단은 경작지 조성을 하면서 삭평이 많이 되어 경작지 토층 아래에 황등색 사질점토인 기반층이 확인되었다. 목관의 구조만으로 분류했을 때 저구릉의 남서쪽 말단부에 연접하여 조성된 목관묘 1호는 토층에서 완만한 'U'자 상으로 부식된 흔적으로 볼 때 통나무형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목관묘 3~5호는 묘광의 규모가 작고 삭평이 많이 이루어져 목관의 정확한 구조를 판단하기 어렵다.

〈표 3〉 목관묘 유구 일람표

번호	장축방향	묘광 규모(㎝)			목관 규모(㎝)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1호	N-65°-W	318	150	121	283	93	동검2, 철검2, 동모2, 청동팔찌1, 동과1, 호형대구1, 유리제경식, 동경3, 동탁1, 동포2, 철모1, 철부47, 칠기부채3, 주머니호1, 파수부장경호1, 단경호2, 옹형토기1(?)
2호	N-77°-W	353	182	144	252	64	세형동검1, 검파두식3, 동과1, 철검1, 철모6, 재갈1, 철부2, 철착2, 파수부장경호1
3호	N-70°-E	101	28	20	94	20	없음
4호	N-88°-E	86	28	18	75	19	없음
5호	N-60°-W	167	73	30	133	32	없음
6호	N-89°-W	228	98	67	182	50	소옹1

(1) 1호 목관묘

1호 목관묘는 북서쪽의 2~6호 목관묘군과 100m 이상 떨어져 해발 64.5m 선상의 충적대지에 독립적으로 위치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18㎝, 너비 150㎝, 깊이 121㎝이고, 목관의 규모는 길이 273㎝, 너비 84㎝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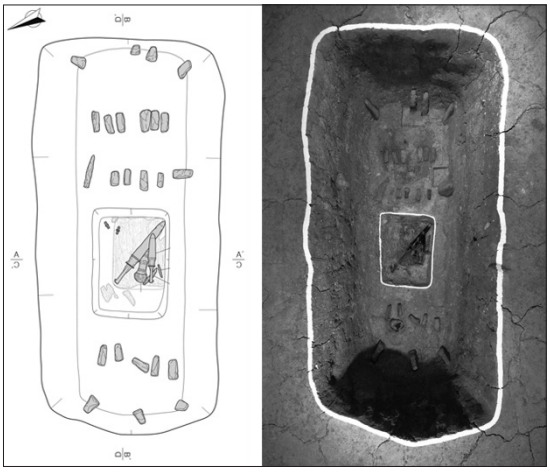
〈삽도 5〉 1호 목관묘 토층 함몰양상

이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N-65°-W이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묘광은 전반적으로 북동고 남서저의 지형에 황갈색사질점토인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1호 목관묘는 토층에서 완만한 'U'자 상으로 부식된 흑색 점토띠의 흔적으로 볼 때 통나무형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목관 내부 토층에서 목개 상부의 봉토흙으로 추정되는 퇴적토가 확인되었으므로 일정 정도 높이의 봉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는 장방형의 수혈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요갱부를 만든 다음, 통나무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의 동편에 판재로 격벽시설을 마련하였다. 이후 목관 내부에 시신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하였다. 유물의 부장이 완성된 후에는 목관에 뚜껑을 덮고 목개를 설치한 다음 봉분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축조 공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① 장방형의 수혈 구덩이와 요갱부 조성(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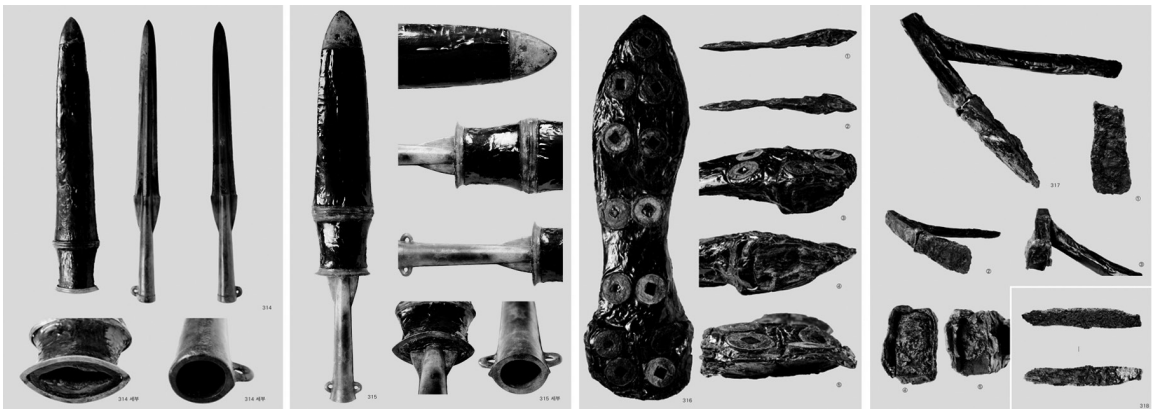
무덤을 조성할 위치가 선정되면 주변 일대를 정지하고 통나무 목관을 안치하기 위해 평면 장방형의 수혈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정지면에는 요갱을 설치하고 판상철부를 묘광 모서리와 정지면에 열을 지어 깔았다. 동서 양단벽부의 벽면에는 각각 4점과 3점의 판상철부를, 남장벽 우측부에서도 판상철부 1점을 묘광 벽면에 비스듬히 기대어 두었다. 정지면에는 동쪽 두부에 주조철부를 6점, 4점씩 2열로 깔고, 서쪽 족부에도 5점의 주조철부를 1열 깔아 모두 3열로 배치하였다. 요갱부 근처에서는 철모 1점이 바닥에서



〈삽도 6〉 묘광 및 요갱부 설치

출토되었는데 이는 벽면에 기대어 두었던 것이 미끄러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철모의 표면에서 초본 식물흔이 보존처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닥에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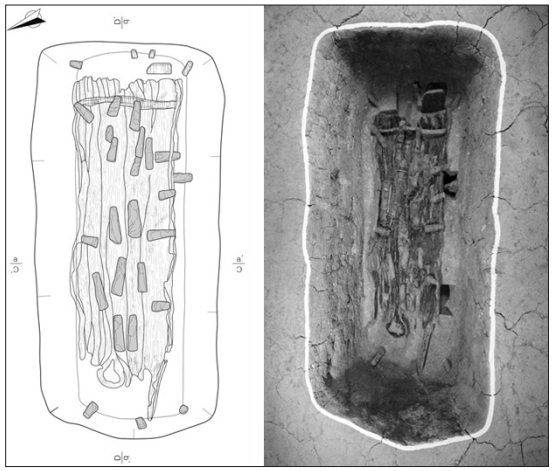
요갱의 상면에서 확인된 검파두식 2점은 목관 내부에 부장하였던 청동 또는 철검의 손잡이가 목관의 함몰 과정에 흘러내린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서는 길이 57㎝, 너비 46㎝, 높이 12㎝ 정도의 유기질 범위가 확인되었는데 유물을 담아 두었던 칠함으로 추정된다. 이 칠함 안에 칠초동모, 오수전으로 장식한 칠과초 등 출토되었는데, 과초의 앞뒤 면에 오수전을 13점씩 부착하여 장식하였다.



〈삽도 7〉 1호 목관묘 요갱 내 출토 유물

② 목관 하부 설치(2단계)

통나무 목관을 하관한 후에 목관의 동쪽부는 "ㅍ"자 상으로 판재를 세워 공간을 분할하였다. 구유형 관을 설치한 뒤에는 둥근 바닥면을 고정하기 위해 사방에 30㎝ 정도 높이로 충전토를 채웠다. 목관의 안쪽에도 여러 점의 판상철부를 측면과 바닥에 깔았다. 목관의 동단벽 격벽용 판재에는 판상철부를 2점, 북장벽에 2점, 남장벽에 4점씩 비스듬히 기댄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에는 2-2-2-2-3점씩 5열로 모두 판상철부 11점을 깔았다. 바닥에서 확인된 판상철부는 북장벽 측면에 기대어 두었던 것이 미끄러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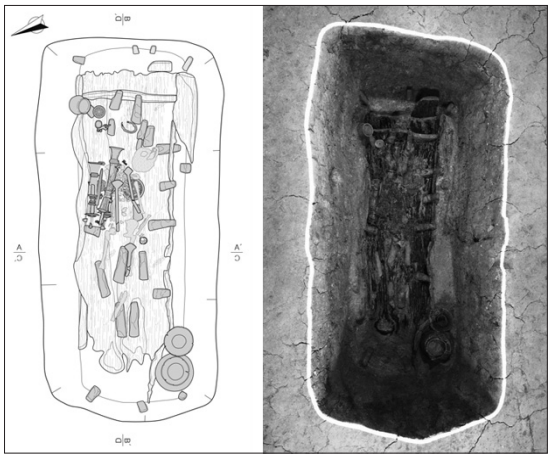


〈삽도 8〉 목관 하부 설치

통나무 목관의 양 장벽에도 비스듬하게 내면에 기댄 상태로 철부 4점씩을 놓고, 바닥에는 2~4점씩 5열로 판상철부 12점을 깔았다. 피장자를 안치하기 전에 대형 이체자명대경 1점(직경 17.4㎝)을 피장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장하였다.

③ 피장자 안치(3단계)

목관의 설치가 완료되면 피장자를 안치하고 주위에는 유물을 부장한다. 피장자의 목에는 경식을 왼쪽 팔목에는 청동제 팔찌를 착장한 상태이며 머리는 동쪽을 향해 있다. 피장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칠초동검 · 칠초철검과 검초 4세트, 성운문경, 동탁을 부장하고, 피장자의 머리, 가슴과 배 위에는 칠기부채 3점을 부채살이 동쪽을 향하도록 얹어 두었다. 피장자의 머리 오른쪽 위치에는 칠기 위에 호형대구와 전한경(소명경) 1점씩을 각각 얹어둔 상태로 장례가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삽도 9〉 피장자 안치 및 유물 매납

남장벽 서쪽부 충전토 상면에는 단경호와 파수부장경호를 각 1점씩, 북장벽의 동쪽부 충전토 상면에는 주머니호 1점을 매납하였는데, 단경호 안에서 칠기류와 숭어 머리뼈, 복숭아, 참외 등의 제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목관의 뚜껑 설치(4단계)

내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관의 판재가 켜켜이 겹쳐진 상태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초 노출된 판재는 목개나 목관의 뚜껑이 내려앉은 것이고, 유물 노출 후에 인골과 함께 바닥면에서 확인된 것은 목관의 바닥재이다.

⑤ 목개 설치 단계(5단계)

내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관의 판재가 켜켜이 겹쳐진 상태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초 노출된 판재는 목개나 목관의 뚜껑이 내려앉은 것이고, 유물 노출 후에 인골과 함께 바닥면에서 확인된 것은 목관의 바닥재로 판단된다. 뚜껑의 형태는 토층 함몰양상과 동단벽부에 칸막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판재형일 가능성이 크다.

⑥ 봉토 조성 단계(6단계)

목개 설치 후에는 봉토를 최소 1m 내외로 성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 함몰된 토층의 깊이와 양상을 보아 흑색 점토띠 상부에 목개 위에 일정 정도 높이의 봉토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봉토에 매납한 유물로는 와질제 타날문 단경호 1점과 옹형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2) 2호 목관묘

2호 목관묘는 묘광을 이단 굴착한 적석목관묘이다.[5] 묘광을 평면 장방형으로 넓게 판 다음, 바닥에서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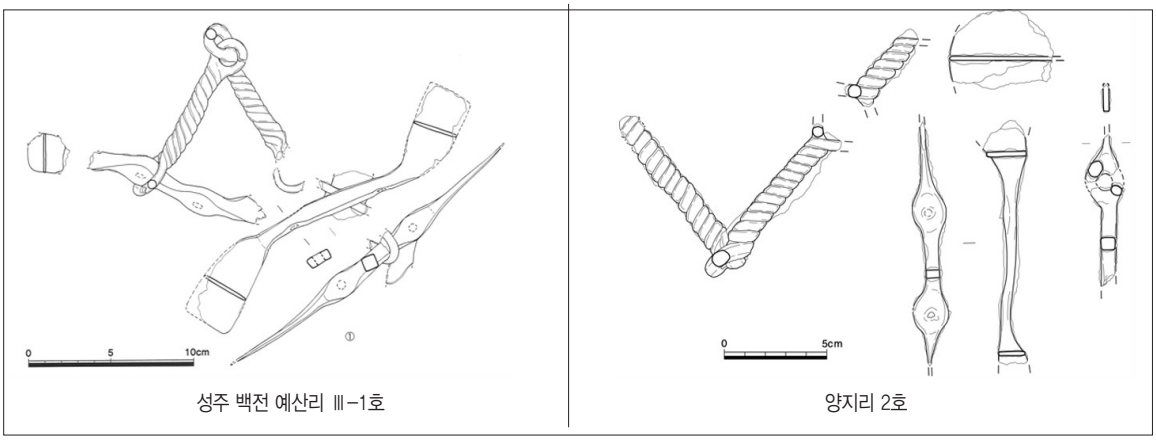
5) 남부지방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목관묘는 대구 팔달동 45호가 대표적이며, 경주 조양동 5호, 경산 임당 F I –15호 등이 있다.

높이에서 30㎝ 정도 안쪽으로 들여 턱을 지워 이단으로 광을 만든 구조이다. 단이 지는 위치에서 남-북 방향으로 대칭되게 3조의 구덩이가 횡으로 굴착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2호 목관묘는 3개의 횡대를 걸친 다음, 그 위에 목개를 덮고 상부를 10~30㎝ 크기의 할석과 천석을 덮은 적석목관묘이다.

목관의 규모는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니질점토의 범위로 추정해 보면 길이 204㎝, 너비 64㎝ 크기의 판재식으로 추정되며, 충전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관 내부에 함몰된 천석 사이에서는 흑색마연장경호와 판상철부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목개를 설치하고 적석된 상단에 부장된 유물로 판단된다. 유물의 출토위치로 볼 때 대부분의 유물은 목관의 밖과 묘광 사이 공간에서 철검, 철모, 동과, 재갈, 불명칠기 등이 부장되었으며, 목관의 내부에서 동검 및 부속구, 동포, 이형동기, 철사와 인골흔이 확인되었다. 영남지방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재갈은 성주 백전 예산리 유적 Ⅲ-1호에서 출토된 것으로, 2호 목관묘에서 이에 후행하는 재갈의 형식이 확인되었다.[6]

〈삽도 10〉 2호 적석목관묘 토층 함몰양상 및 조사후 전경



성주 백전 예산리 Ⅲ-1호　　양지리 2호

〈삽도 11〉 영남지역 출현기 재갈

6) 이현우, 2020, 「기원전 6~1세기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의 마구」, 『북방의 재인식 - 우리 고대문화 연구에서의 함의』,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국상고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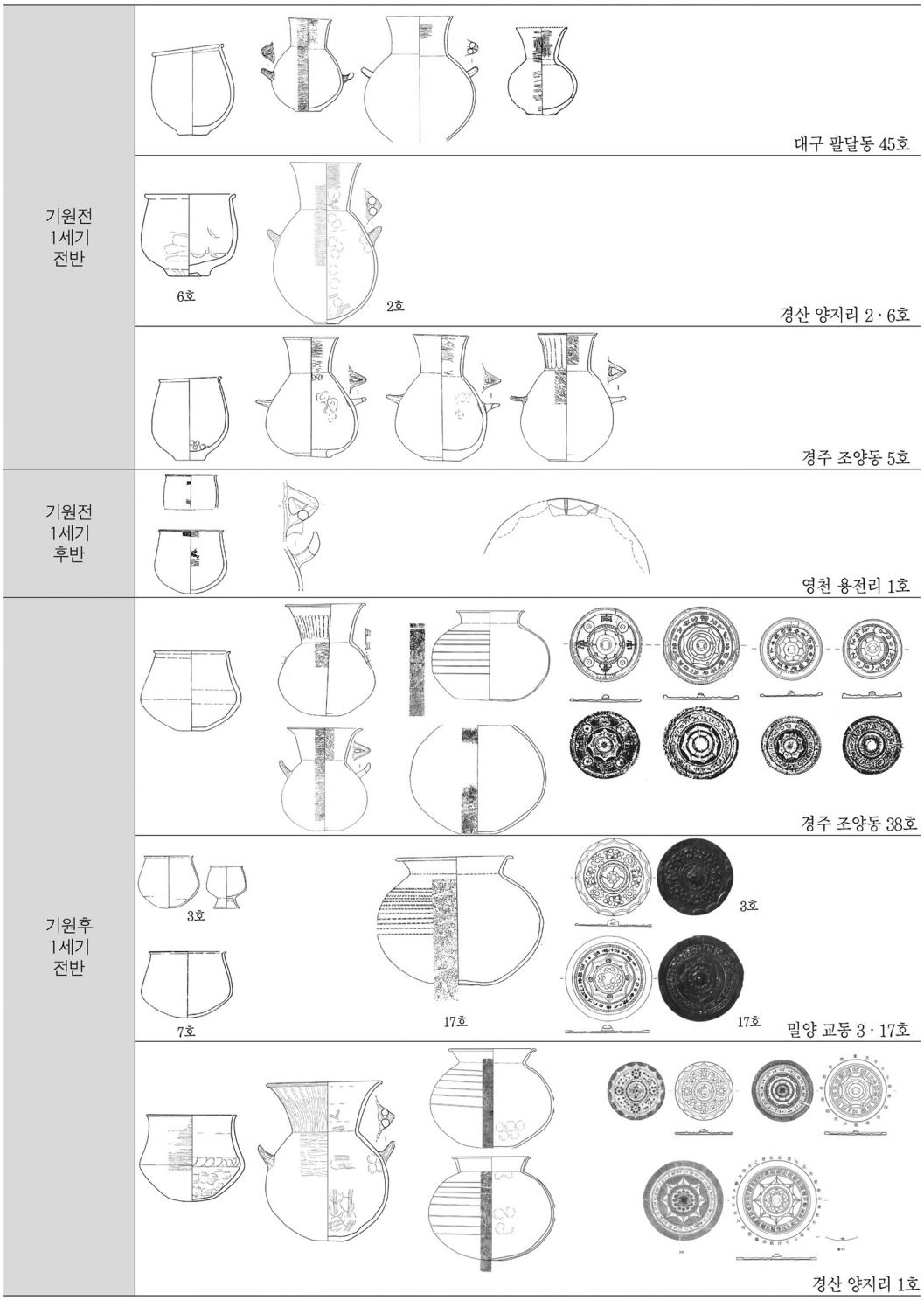
Ⅳ. 맺음말

경산 양지리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거 및 생산, 무덤과 관련된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비록 계단식 경작으로 인해 유구가 많이 훼손되고 하부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지만, 단위 지역에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된다는 사실은 이곳이 오랫동안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자연환경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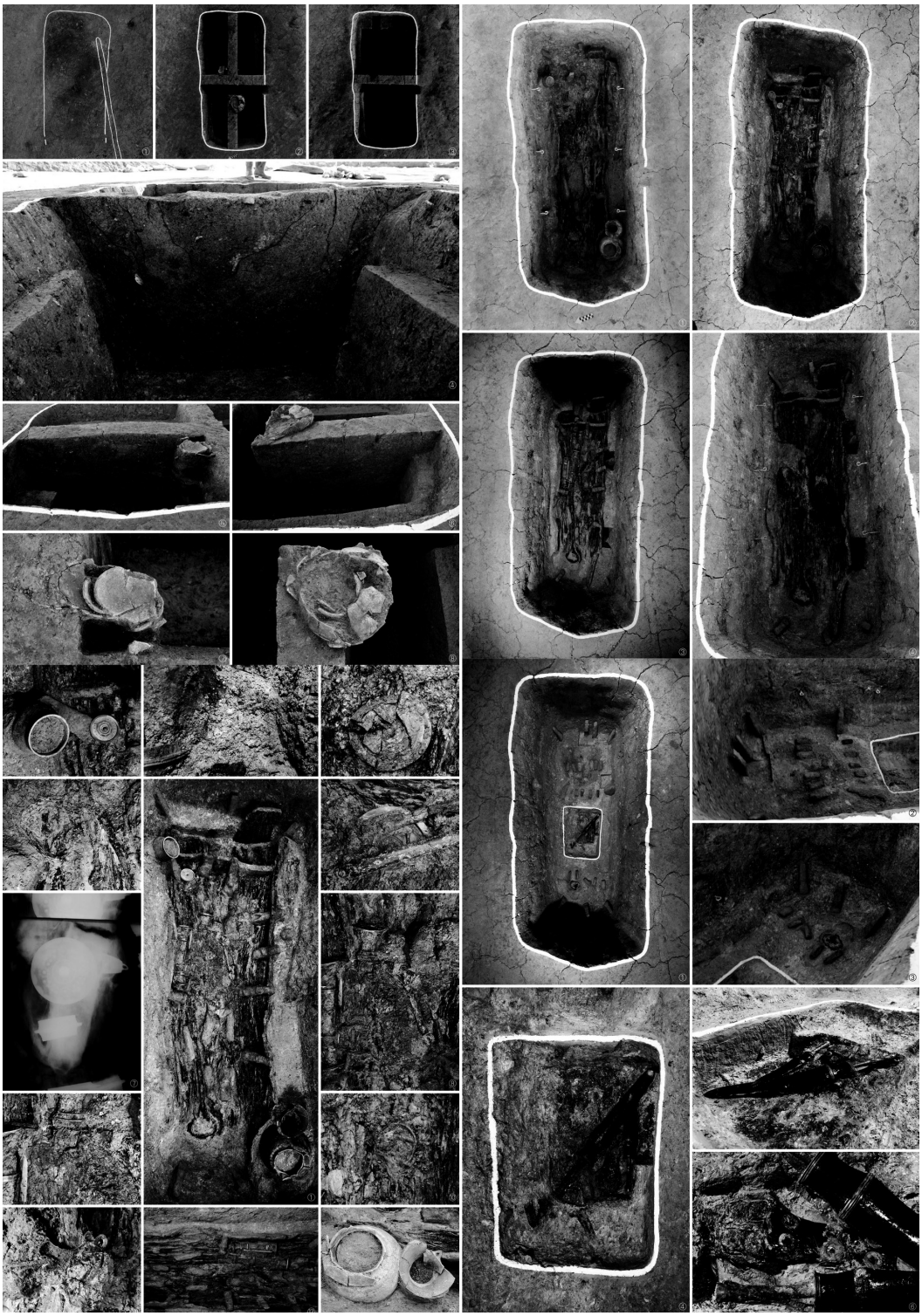
본 유적에서 2호 적석목관묘는 이단으로 굴착된 지점에서 3열의 횡대시설의 발견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호 목관묘에서 기원 전후 중국과 교역의 산물인 다량의 청동제 유물이 통나무 목관과 함께 확인되었고, 요갱에서도 신분을 상징할 만한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오수전 장식의 과초와 중국제 거울로 볼 때 다호리 1호, 조양동 38호와 유물 공반상에서 유사점이 확인된다. 또한 바닥과 벽면, 목관 내면에 철부를 깔거나 벽면에 기대어 두는 양상은 경산 임당동, 영천 용전리 1호, 경주 조양동 38호, 경주 사라리 130호, 창원 다호리 등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진변한 사회의 수장급 무덤에서 공유되던 매장의례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산 양지리 유적 목관묘의 연대는 1호와 2호에서 출토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의 형식을 중심으로 토기 편년 성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2호 목관묘는 1호 목관묘보다는 한 단계 이상 선행하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2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흑색마연장경호는 굽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굽이 일부 확인되나 평저인 유물이 함께 출토된 경주 조양동 5호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밀양 교동 3호와 17호에 출토된 주머니호와 단경호는 양지리 1호보다 빠르고, 조양동 38호보다는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이 시기의 표지유적과 비교해 보면 양지리 2호→조양동 5호→다호리 1호→조양동 38호→교동 3호 · 17호→양지리 1호의 순서로 상대 서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한경은 창원 다호리 1호, 밀양 교동 3호 · 17호, 포항 성곡리 13호와 같이 진변한 각지 최고 수장급 무덤에서 1점씩 출토되었다. 그런데 경주 조양동 38호에서 출토된 전한경 4점은 소형이고 문양 구성이나 명문의 내용으로 볼 때 양지리 1호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토기의 편년 검토에서 조양동 38호가 다소 앞선 형식이라는 점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전한경의 수입 시점 및 전세와 무덤의 조성 시기 간에 다소 차이로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삽도 12〉 요갱부에서 출토된 칠과초는 오수전의 형식과 이것이 장식으로 이용된 점을 고려할 때 기원전후한 시기로 편년된다. 피장자를 덮었던 칠기부채 2점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서 기원 전후로 결과가 도출되어 편년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경산 양지리 유적의 1호 목관묘의 피장자는 금호강 일대의 대구 만촌동, 영천 용전리, 경주 조양동은 물론 성주 예산리, 창원 다호리 목관묘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최고의 위세품이 모두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보아 진변한을 아우르는 개인 유력자의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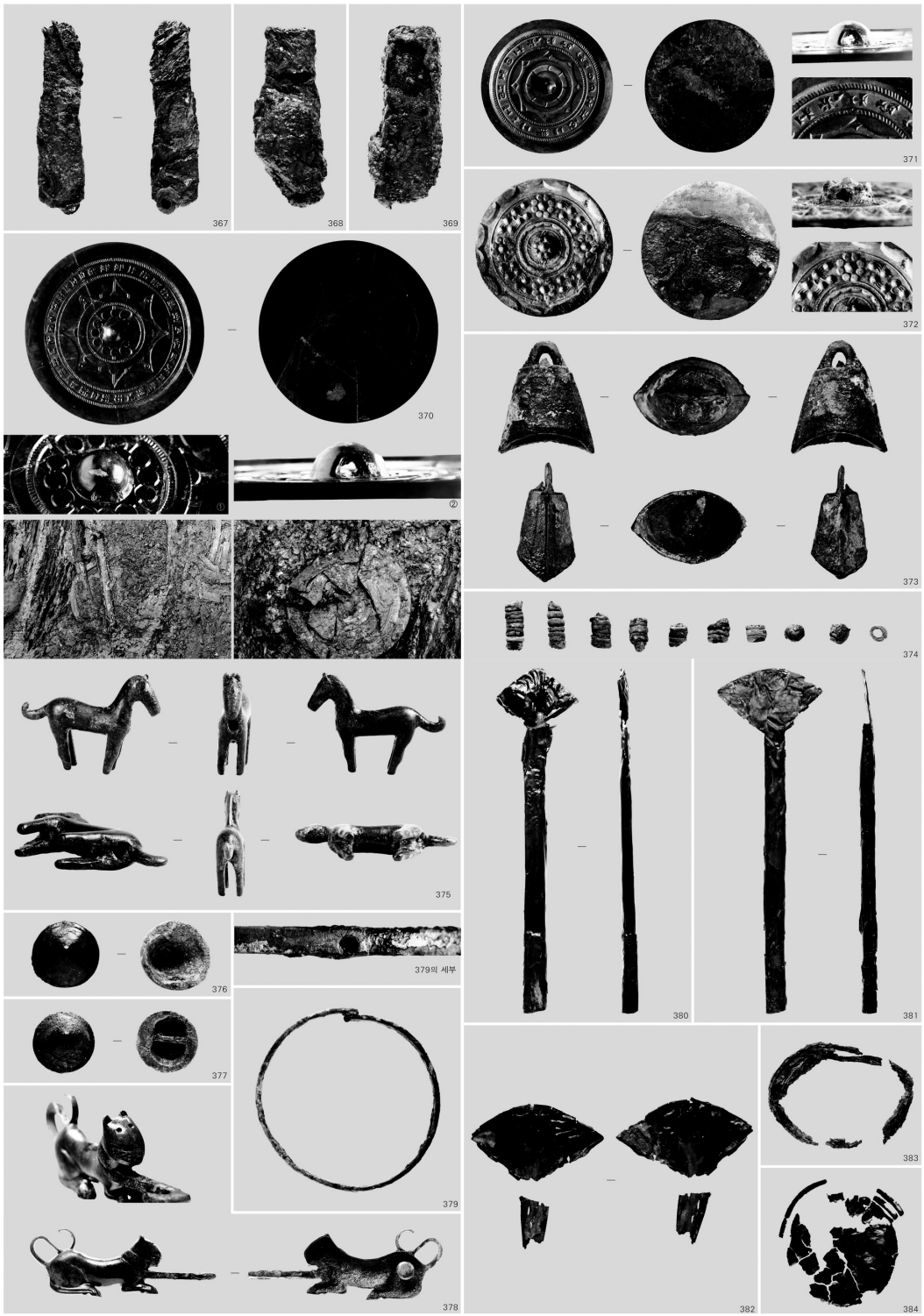


〈삽도 12〉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 토기의 상대편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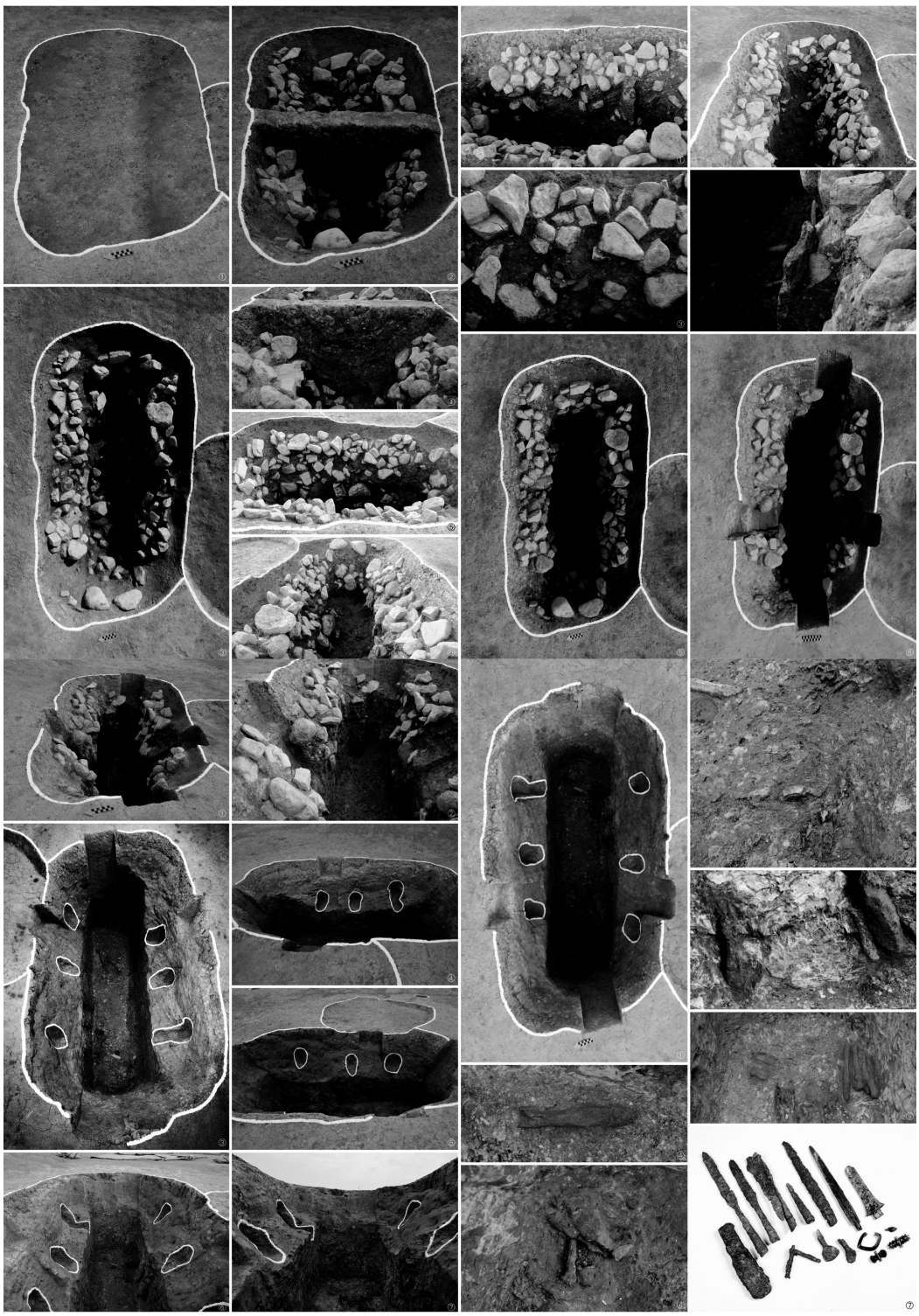


〈사진 3〉 1호 목관묘 조사 전경 및 유물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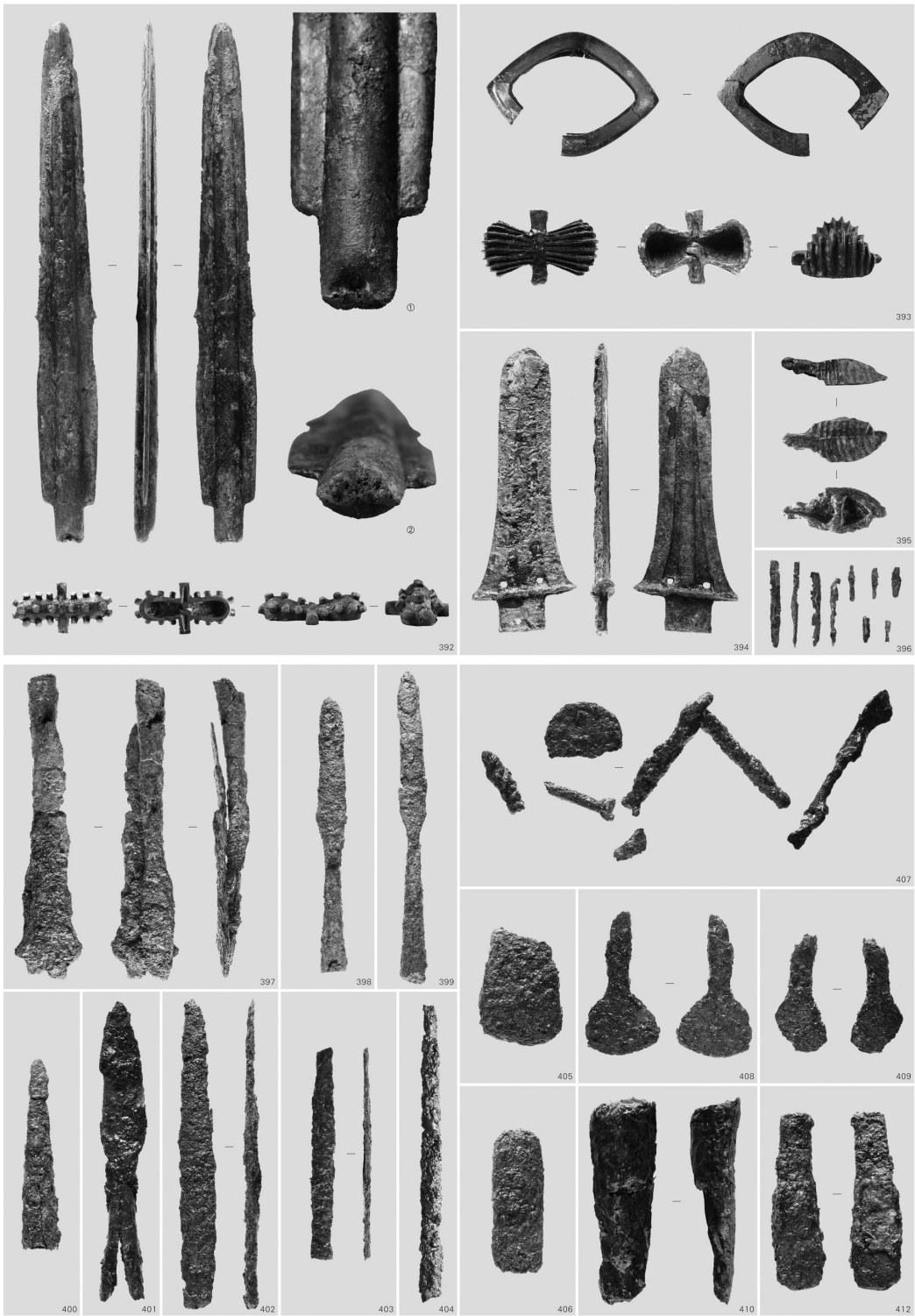
〈사진 4〉 1호 목관묘 출토 유물



〈사진 5〉 1호 목관묘 출토 유물



〈사진 6〉 2호 목관묘 조사 전경 및 출토유물 일괄



〈사진 7〉 2호 적석목관묘 출토유물